

주전자님께

주전자여, 당신은 하찮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완전합니다. 당신의 둥글둥글한 모습은 완만함이에요. 부드럽고 완만한 곡선은 유연한 마음입니다. 당신은 금빛 따스함으로 은은히 빛납니다. 당신의 때묻고 찌그러진 모습은 우리 삶의 어려움입니다. 그 힘든 삶으로 왜곡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때는 겉에만 묻어 있고 속에는 묻지 않았습시다. 속은 그저 텅 빈 밝음뿐입니다. 당신의 얼굴에 비친 흐릿하고 일그러진 모습들을 당신은 “그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우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닦을수록 빛나는 얼굴로 더 밝게 비춰 줍니다.

당신은 그저 무심히 존재할 뿐 어떻게 써 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담을 만큼만 담고 아낌없이 넘겨버리는 욕심없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비어 있을 때는 시끄러우나 채울수록 조용해지는 것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어떤 것을 담아도 싫어하지 않고 담아두고 필요한 만큼 넘치지 않게 내어 줍니다. 많이 담아두고 조금씩 내어 놓는 절제된 마음입니다. 당신은 드러내는 것보다 간직하는 것이 더 크고 많음을 압니다. 당신은 간직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고 본연의 텅 빈 모습으로 되돌아 갑니다. 무언가 채워져 있을 때는 그것으로 스스로를 한정짓는데 비워 놓으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비움의 효용성을 가르쳐줍니다. 당신은 몸뚱이보다 그 내용물을 더 아낍니다. 그것은 비록 찌그러져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몸보다는 마음이, 외모보다는 그 인격이 더 소중한다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당신은 보는 각도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여 어느 한 모습을 그것의, 그 사람의 전부로 속단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되어 줍니다. 물을 담으면 물 주전자가 되고, 술을 담으면 술 주전자, 오줌을 담으면 오줌 주전자가 됩니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돼”하는 시비가 없이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끓이면 끓고, 얼리면 얼고, 던지면 날아가고, 밟으면 “아야!” 하고 찌그러집니다. 그러나 찌그러질지언정 깨지지 않는 참을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퍼짐한 엉덩이로 편안히 앉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 싫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누구나 쓰게 하는 열린 마음입니다. 담는 주둥이가 내놓은 주둥이보다 큰 것은 보고 듣고 아는 것보다 적게 말하라는 듯하며 두경을 받치는 둥근 띠는 손오공의 머리띠처럼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꾸짖는 듯하고 찌꺼기를 거르는 거름채는 여똥 정서는 유보하고 밝음만을 나누라는 가르침인 듯합니다.

아!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당신이 돌덩이로 존재할 때 그 누가 지금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신은 수많은 창조과정 진화과정의 집합입니다. 당신을 지금 여기에 있게 하기 위해 온 우주가 동원되었습니다. 당신은 맑은 물로 목마름을 적셔줍니다. 당신은 묵묵히 존재하며 찾는 자에게 드러냅니다. 이제 당신이 왜 제계로 오지 않느냐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당신께 가겠습니다. 가서 당신의 맑은 물로 묵은 때를 깨끗이 씻겠습니다. 당신이 주전자여서 주전자답듯 저는 사람이므로 사람답겠습니다. 당연한 당신의 역할에 감사하듯 당연한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새롭게 발견했듯이 주위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발견하겠습니다.